

시민사회 성명, 핵무기금지조약 2 차 당사국회의
핵무기의 인도적 영향에 대한 토론
이기열, 한국원폭피해자 1 세
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(SPARK)

한국원폭피해자의 목소리 The Voices of Korean Atomic Bomb Victims

이기열 한국원폭피해자협회 감사

핵무기 금지에 대한 발표와 토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한국원폭피해자로서 저희의 경험을 연구 및 정책에 더 많이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

1945 년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한 원자 폭탄에 피폭된 한국인의 수는 약 7 만 명에서 10 만 명, 사망자는 약 5 만 명으로 추정됩니다. 한국원폭피해자 대부분은 일제에 강제 동원된 노동자였습니다. 해방 후 약 43,000 명의 생존자가 한국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한국 정부의 무관심과 사회적 냉대와 차별 속에서 원폭 후유증으로 고통받다가 사망했습니다. 한국원폭피해자들은 미국의 원폭투하, 일본의 식민지배, 한국정부의 무관심과 방치라는 '3 중의 피해자'인 셈입니다.

1945 년 피폭 당시 저는 5 개월 된 갓난 아기였습니다. 78 년이 지났지만 제 몸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그날의 참상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듯 밤마다 악몽 때문에 잠이 깡니다. 제 나이는 올해 79 세입니다. 현재 생존해 있는 한국원폭피해자 1 세 1,800 명 가운데 제일 막내 뺨입니다. 이제 산다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? 죽기 전 제일로 원하는 것은 '원폭 투하는 잘못되었다. 미안하다'라는 말입니다.

피폭에 대한 원죄적 책임이 있는 미국이 1945 년 핵투하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한다면, 어떤 나라도 핵무기를 사용할 생각을 못하게 될 것입니다. 이것이 제가 원폭국제민중법정의 원고로 참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.

피폭자로서 전쟁 없고 핵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후손들에게 선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한국 피폭자로서 한국 사람들이 또 다시 핵무기의 희생자가 되는 것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하겠습니다. 이것이 평생을 피폭자의 운명을 안고 고통스럽게 살아온 저의 소명이라고 믿습니다.

저는 한국 원폭 2 세 한정순씨 이야기도 대신 전하고 싶습니다. 그의 어머니는 히로시마에서 임신 중 피폭되었는데 태내 피폭자였던 아들은 태어난 지 1 년 후에 죽었고, 그 이후에 낳은 6 남매도 모두 건강하지 않았습니다.

다섯째인 한정순씨는 어릴때 부터 다리에 힘이 없어 잘 넘어지고 했는데 20 대가 되어서는 다리의 통증으로 제대로 걷지도 앉지도 서지도 못했습니다. 그의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. 결혼 후 첫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뇌성마비를 갖고 태어난 것입니다.

이제 65 세인 한정순씨는 양쪽 다리 대퇴부 무혈성괴사증으로 고관절이 괴사되어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고, 이것 말고도 여러 질병으로 지금까지 12 차례의 수술을 받았습니다. 이

모든 질병의 원인은 피폭자인 부모로부터 태어난 것 밖에 없습니다. 그런데도 그는 원폭 피해자로 인정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. 미국은 지금이라도 원폭후유증으로 평생을 질병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피폭 2 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.

이 자리에 한국 원폭피해 1 세와 2 세, 5 명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. 한국원폭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원폭 국제민중법정에도 지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
반전반핵평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며, 감사합니다.